

“한반도 비핵화 위해 대화 진전을”

G20 정상회의서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방북 결과 공유 초점
양국 정상, 시진핑 방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환경문제 관련 협력도 강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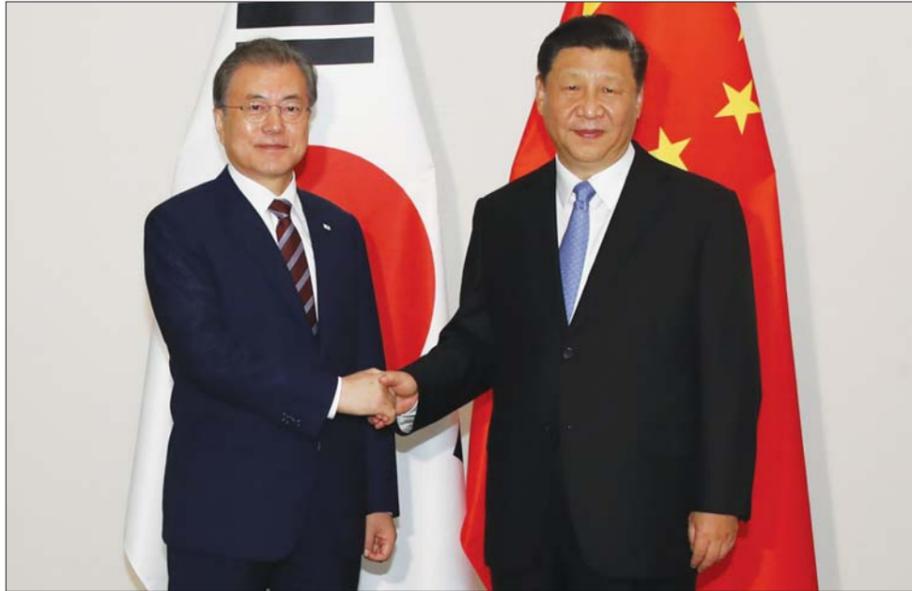
한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7개월 만에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하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과 기여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북 결과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 우호협력과 한반도 및 역대 평화 변역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우리 양국이 손 잡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일본 오사카 웨스턴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양국 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한반도와 이 지역 평화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두 정상은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뤄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

면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외교·안보는 물론 의회·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이 필요하

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은 한·중 간 교류·협력 확대의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 관련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환경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돼 나가기로 희망했다.

정외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중간 교류·협력 확대·실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 33개 부처 178개 법·제도 변경

기재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직장내 괴롭힘 금지·음주운전 처벌 등 포함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제도·법규사항이 수록된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등 10개로 정리했다. 또 53개의 인포그래픽을 재구성해 국민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 11

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이다. 여기에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이 담겼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도 포함됐다.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접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일 오후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오픈 예정인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 및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뉴시스

“호남 민심 잡겠다”... 평화당 민생 투어

완주에서 시작... 오늘 봉동읍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간담회

제2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27일 완주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

민주평화당은 27일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호남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심 속으로 1박 2일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중소기업 (주)신화를 방문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평화당 관계자에 따르면 “(주)신화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민주평화당 감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기업”이라며 “평소 개별 대기업의 갑질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정동영 대표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주)신화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약속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이후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팽치두래농장을 방문해 수박 농사 봉사활동을 하며, 이후 비봉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과 정치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진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4·3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확인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호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호남 1당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며 “민심 속으로 1박 2일 민생 투어를 통해서 호남의 민심을 잡고 제2대 총선 승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28일에는 봉동읍에서 로컬푸드 생산자들과 만나 지역 농업과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강소성 상호협력 강화 방안 머리 맞대

도의회 대표단, 도와 자매결연 25주년 맞아 강소성 방문 우호증진 등 논의

전북도의회 대표단(단장 송성환 의장)이 중국 강소성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만나 양의회간 우호증진 및 두도시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1대 도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중국 강소성을 방문한 도의회 대표단은 러우 친지안 강소성 당서기 겸 인대주 임 등을 만나 양의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 양주시 당서기 겸 인대주 임 등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두 도시 및 의회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이다.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은 지난 28일 오후 강소성 외빈접견실에서 러우 친지안 강소성 당서기 겸 인대주 임 등을 만나 양의회간 우호증진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 대표단은 ‘전북도와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 행사가 남경시 일원에서 열리기까지 두 도시와 양 의회는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상호이해·상호존중의 기본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 결과 두 도시는 자매결연 이래 물적 인적 관계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성환 도의장은 “두 도시 관계가

일관되게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두 도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교류와 동반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양 의회와 인대가 촉진제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러우 친지안 강소성 당서기는 “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으로 전북 새만금과 강소성의 연청을 한중경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추진이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양 지역의 산업, 관광, 교육분야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